

## 아파트는 골목이다

임형남, 노은주

1970 년에 50%였던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2010 년 기준으로 80%를 넘어섰다. 한국의 도시화는 이제 중착 단계라고 교과서에도 나온다고 한다. 전체 국토의 17%에 인구의 80% 이상이 살고 있으니 도시의 밀도가 점점 높아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가 50%다. 그러니 모두들 아파트에 살고 있거나 아파트에 살기 위해 그토록 애쓰고, 뭔가 새로운 게 없나 그쪽으로 눈과 귀를 쏘아 붓는다. 주거의 문제는 곧 아파트의 문제였고, 부 또한 아파트에서 나온다고들 알고 있었다.

아파트에는 기존 주거 양식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기능들이 네모반듯하거나 혹은 조금 더 모양새 있게 변형된 공간에 한꺼번에 집어넣어졌다. 단지 네모난 방들의 집합인 그 거대한 덩어리 안에는 방도 있고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대청이자 마당의 기능을 하는 거실도 모두 있다. 한정된 면적에서 최대의 공간을 뽑아내며 거기에 편리성을 더해서 사람들의 동선을 혁신적으로 단축한 것이 아파트의 최대 장점이다.

원래 인간의 몸을 담고 있는 집이라는 것은 단순한 공간이라는 의미 혹은 덮개라는 의미에서 출발했다. 집의 원초적인 형식은 비와 바람, 동물 등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은신처(shelter)로서 자연적인 지형조건에 의한 동굴이나 바위틈에 나뭇가지나 동물의 가죽을 덮는 간단한 형태였다. 유목생활이 농경생활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한곳에 머물게 되자 손쉽게 짓고 허물 수 있는 일시적인 은신처 대신 잠자고 쉬면서 오래 살 수 있는 튼튼한 집을 공들여 짓기 시작했고, 하나 둘씩 모여 살게 되면서 촌락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항과 더불어 양옥이라 불리는 서양식 건축양식이 도입되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전통적인 한옥 형태는 점차 낡은 것으로 치부되고 벽돌과 콘크리트로 짓는 집이 각광받게 되었다. 특히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좁은 면적에 여러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주거양식이 보편화 되면서 단독주택은 연립주택으로 다시 아파트로 그 몸집을 불려갔다. 50 년대 말~60 년대에는 국민주택 단지가, 70 년대에는 반포, 잠실 등의 아파트단지가 대규모로 건설되었고, 90 년대에는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한다며 주택 2 백만 호 건설을 국가정책으로 삼아 신도시가 속속 건설되기도 했다.

임형남, 노은주

1998년부터 가온건축을 운영하고 있다. 금산주택, 루치아의 뜰, 신진말 빌딩, 존경과 행복의 집, 프라즈나의 집, 아미티스 가든, 제파와나 선원 등을 설계했고, 적십자 시리어스 리퀘스트, 유니세프 관련 청소년 시설, 북촌길·계동길 탐방로 등 도시·사회 관련 설계를 진행했다. 공간디자인대상, 건축가협회 아천상, 공간문화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저서로 「나무처럼 자라는 집」, 「그들은 그 집에서 무슨 꿈을 꾸었을까」, 「사람을 살리는 집」, 「작은 집, 큰 생각」, 「이야기로 집을 짓다」, 「서울풍경회집」, 「골목인문학」 등이 있다.

### 주요 내용

- 수선전도로 떠나는 골목 탐험
- 내가 살았던 골목
- 사라진 골목, 사라진 동네
- 집을 품은 골목, 아파트로 치환되다

집이란 어느새 ‘안식처’라는 원초적 의미를 잃고 아파트로 대변되는 ‘환금성’과 ‘경제성’으로 상징되는 절대적 가치로 치환되었다. 사람들은 재산의 대부분을 집에 쏟아 붓고, 모두들 집의 가치가 올라가는 일에 온 힘을 쏟는다. 집값이 오른다는 말에서 ‘오르다’란 언뜻 보기엔 진행형 동사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은 완결형이자 수동태다. 그 ‘오른다는 것’은 주체인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되지만 결국 주체를 소외시킨다. 특히 수치적 가치로서 ‘오르다’는, 적어도 자본주의에 속한 시간에서는 소유의 다른 이름이다. 그것은 소유한 사람에게는 더 큰 여유를, 소유하려는 사람에게는 상실을 안겨준다.

그리하여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른다는 것은 커다란 열망이 된다. 오른다는 것은 차이를 만들고, 그 차이를 점점 벌리며 뒤를 돌아보려 하지 않는다. 오르고 있거나 이미 오른 것에게, 다시 내려간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치욕이다. ‘오르는 것들’은 클수록, 너무 커져서 손에 잡을 수 없는 것일수록 더 환영받는다.

그래서 “집 값이 올랐을”때 그 ‘집’은, 매일매일 쓸고 닦고 만지며 낡은 벽지를 갈고, 화해할 수밖에 없는 식구들의 소소한 다툼도 덮어주곤 했던 그 ‘집’이 아니다. 집의 숨은 역사는, 방 개수와 거실의 넓이와 전철역까지의 거리 앞에서 무력하다. 면적이 넓을수록, 층수가 높을수록, 어디의 어떤 아파트에 사는가가 사는 사람의 자리를 대변해 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의 집이 아닌 더 크고, 더 비싼 어떤 집을 가지기 위해 마음과 몸의 안식처라는, 집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의미가 아닌 부차적인 의미에 구속된 지 오래다.

살던 집을, 골목을, 동네를 “부수고 새로 짓자”는 태도는 과거의 것, 오래된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인색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멀쩡한 동네에 혹은 아파트에 ‘사망언도’가 내려지면, 동네의 들머리에는 ‘경축, 안전진단 통과’, ‘경축 재개발사업 확정’ 등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린다. 건물이 안전하지 못한 데 축하한다는 말을 붙이는 것은 누가 봐도 엄청난 형용모순이고 우리의 감각을 거스르는 일이다.

자신이 살았던 곳이고 사는 동안 쌓여온 여러 가지 추억이 있는 곳을 허무는 것이 축하할 일은 분명 아닐 것이다. 이런 전도된 가치관으로 인해 생기는 정서적인 장애는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큰 질병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일을 추진하는 일단의 사람들이나 그 일을 지켜보는 사람들 모두 역사적인 경험을 같이 해온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골목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계와 규칙들이 살아있었고, 그 안에 만들어진 공동체에서는 안전이 있고 협동이 있고 휴식이 있었다. 그것이 만들어지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단위 공간들을 어떻게 엮어나가느냐에 따라 도시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고 독자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다. 아주 오랜 시간 쌓여온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은, 구성원 모두가 장소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공동체의 출발점이자 유년의 놀이터이자 안식처였던 그 골목을 대신할 수 있을까?

일시  
2019년 6월 24일, 오후 3시 - 5시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강연 후 발송하는 문자 설문에 응답 부탁드립니다.